

[LIVE UPDATE: 2026.06.10 13:00 KST]

극단적 변동성과 자산 디커플링

지정학적 뇌관과 인플레이션 대기가 빚어낸
글로벌 자금의 엑소더스 경로 추적

Intraday Market Diagnostic Report | Focus: Equities, FICC, Macro Catalysts

오늘의 핵심 관전 포인트



[매크로/인플레이션] 미국 CPI 대기

10년물 국채 금리(4.53%)
상승 압력 지속. 시장은 수요일
발표될 물가 지표(예측: **근원
CPI MoM 0.3%**)에 금리와
달러의 단기 방향성을 베팅하며
극도의 관망세 진입.



[지정학 리스크] 중동 긴장과 기술주 매도

이란 전격 공습 소식이 원유
변동성을 자극하고 위험자산
(Risk Asset) 엑소더스를
촉발. AI 인프라 우려와 겹
치며 **나스닥(-1%)** 및 글로벌
반도체 섹터 직격탄.



[포지셔닝] 단기 방어적 진지 구축

아시아/유럽 간 엇갈린 구도
속, 달러 약세(-0.32) 대비
원화 강세 방어(1,445원).
대체 자산인 **비트코인(\$50K
돌파)**과 금으로의 단기 수요
이동 관측.

지정학적 충격의 자산 시장 파급 경로



글로벌 자금 엑소더스와 지역별 디커플링

S&P 500(0.00%)
DOW(0.00%)
NASDAQ(-1.00%)

독일 DAX(-0.74%)
영국 FTSE 100(-1.41%)
홍콩 항셱(-1.41%)
한국 코스피(-4.1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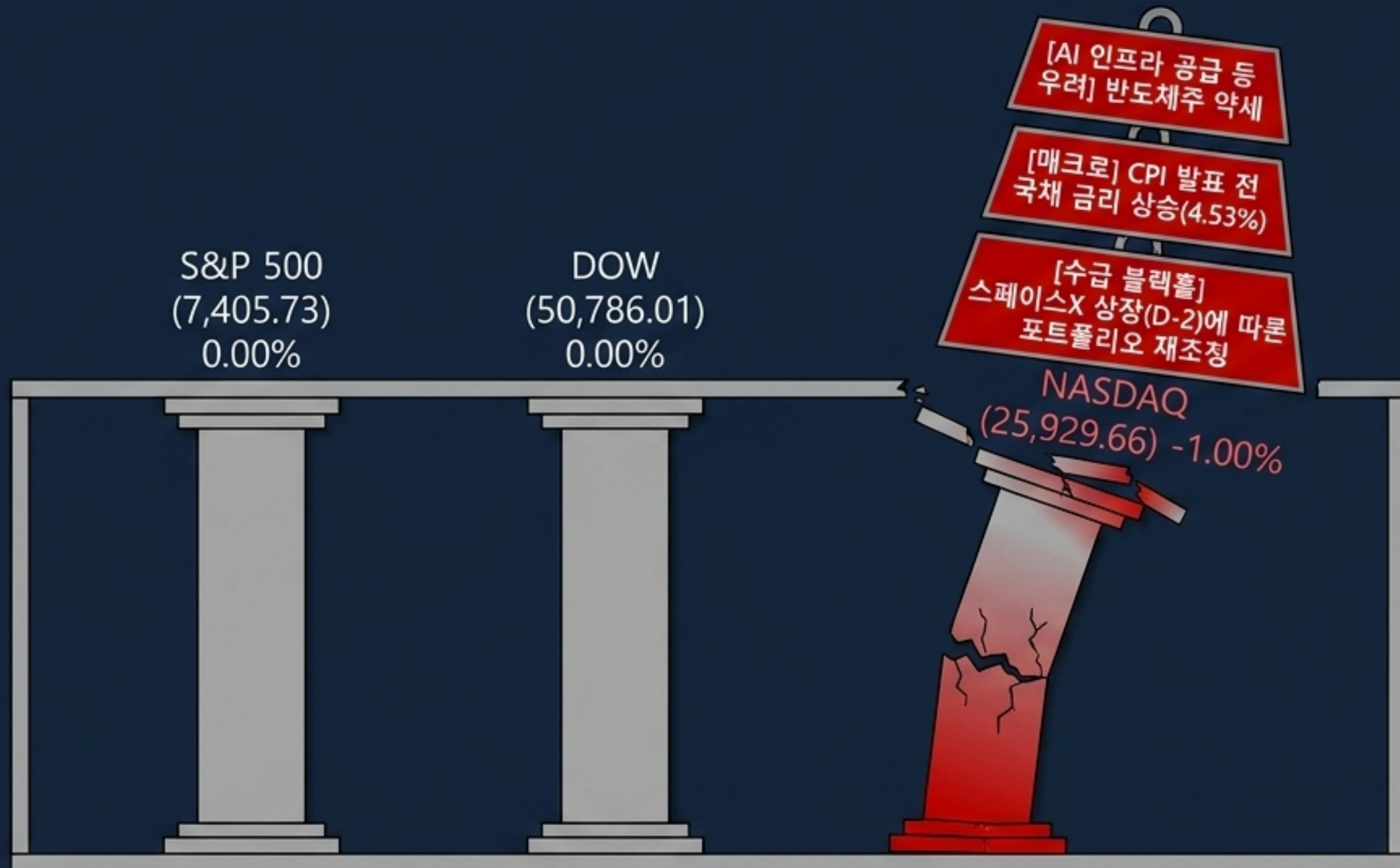
방산주 외 전반적 매도세

상하이(3,215.00, +0.45%),
선전(+0.62%),
닛케이 225(56,734.00, +0.46%),
ASX 200(+0.52%)

엔화 약세 및 자원주 견인

아시아 주요국은 수출/자원주를 방패 삼아
상승했으나, 유럽과 한국은 직격탄.
미국은 기술주 중심의 차별적 하락 전개.

미국 증시: 지표 이면의 기술주 변동성



표면적인 S&P 500의 보합세 이면에는 연초 대비 31% 상승한 나스닥의 단기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거대한 수급 이동이 존재함.

코스피 심층 진단: 붕괴된 '8천피' 방어선



개인의 1조 원대 저가 매수 베팅과 반도체 재평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, 거시적 하방 압력이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시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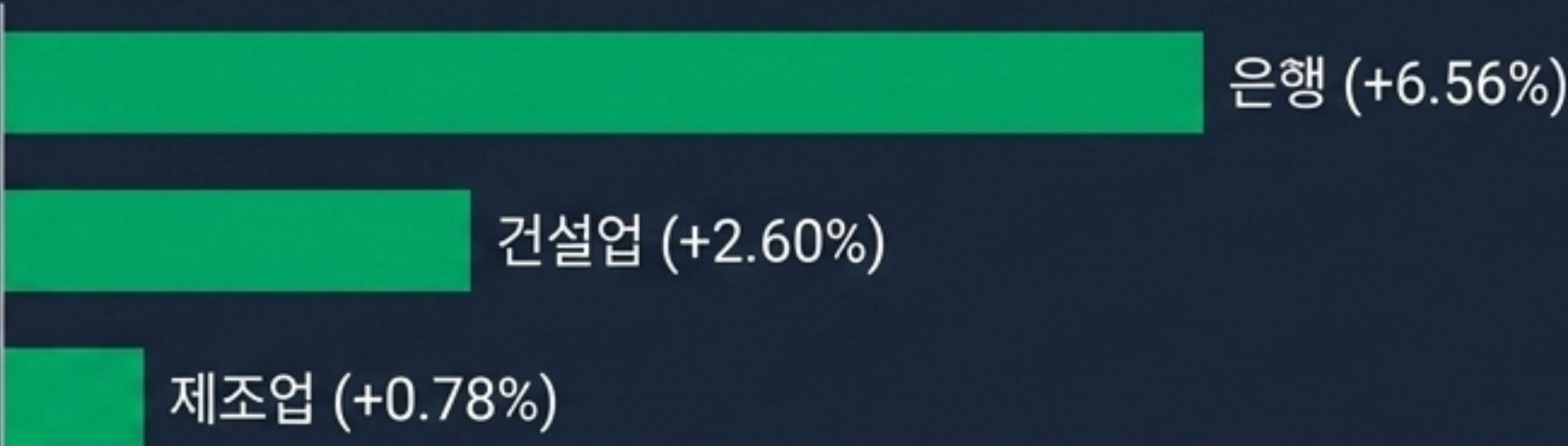
섹터 디커플링: 방어주로의 자금 대피

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(은행) 및 전통 방어 섹터로
수급이 극단적으로 쏠리는 전형적인 Risk-off 패턴 발현.

경기 민감 & 기술주



Risk-off 방어주 & 수혜주



시총 상위주 붕괴: 지수를 끌어내린 거인들



반도체 투톱(삼성전자, SK하이닉스)의 동반 5%대 급락과 NAVER의 두 자릿수 하락이 코스피 -4.16% 급락의 절대적 원인 제공.

FICC 진단 매트릭스: 상충하는 매크로 시그널

자산군	현재가 및 등락	시그널	핵심 동인
미 국채 10Y	4.53% (+5bp)	● [Risk-off]	FOMC 매파 기조 유지 및 CPI 경계감
달러/원 환율	1,445.00 (-5.30원)	● [Mixed]	글로벌 달러 약세(-0.32) 및 유로 강세에 연동된 원화 방어력
원유/금	WTI \$88.80 (+\$2.62) / 금 \$1,889 (+\$18)	● [Risk-off]	OPEC 감산 기대 + 중동 긴장 속 안전자산 수요 유입
비트코인	\$50,000+ (+\$1,240)	● [Risk-on]	지정학적 회피 자산 성격 부각 및 ETF 순유입 지속

매크로 이벤트 레이다: 운명의 '수요일'

6/10(수)

6/11(목)

6/12(금)

6/15(월)

6/16(화)



★★★★

21:30 |
미국 5월 CPI 및 근원 CPI
(예측 0.5% / 근원 0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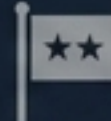


23:30 |
미국 원유재고
(예측 -5.100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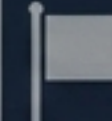


★★★★

08:00 & 21:30 |
한국 실업률 (2.8%) &
미국 신규 실업수당 / PP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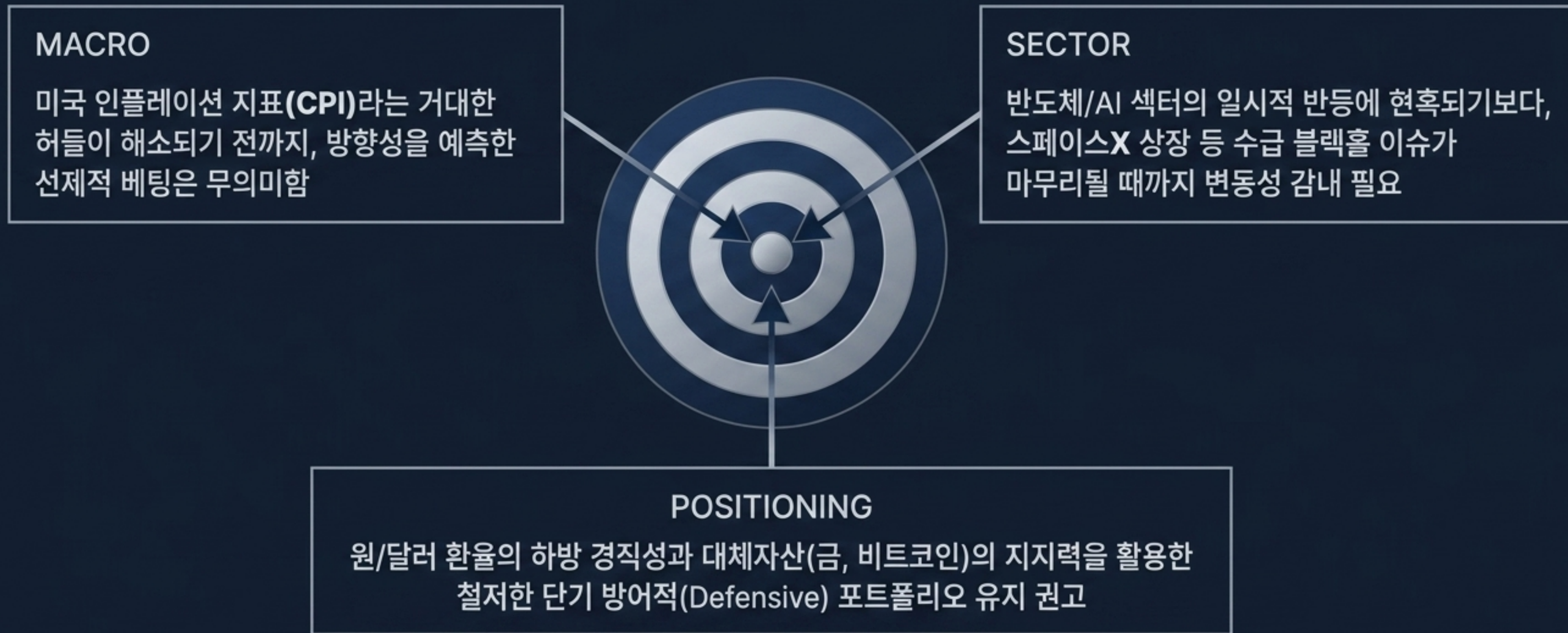
미시간대 인플레이션
기대치(4.8%)



중국 산업생산 등

이번 주 변동성의 종착지는
수요일 밤 미국 CPI 결과에 달려 있음.
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만
금리/달러 약세 전환과 증시 반등 가능.

최종 진단 및 넥스트 스텝



지금은 방향(Direction)이 아닌 변동성(Volatility) 그 자체를 관리해야 할 구간입니다.